

## 제주동자석(濟州童子石)의 헤어디자인 연구

김춘일\*

### 국문 요약

헤어디자인(hair design)은 모발이라는 소재에 선(line), 모양(shape), 방향(direction), 그리고 질감(texture)을 이용해 만든 예술로서 머리를 장식하는 것은 미에 대한 기본적인 욕구 중 하나로 남녀노소, 신분고하를 막론하고 인간이 갖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더욱이 머리모양은 인종, 풍토, 그 시대의 미의식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민족, 종교, 정치, 성별, 연령, 직업과 신분 등을 나타내며 그 시대의 사회가 추구했던 모든 가치관을 읽어 볼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서 여러 가지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 제주동자석(濟州童子石)은 무덤가에 한 쌍으로 세워지는 약 30~100cm 크기의 사람 형태를 지닌 조형물이다. 일반적으로 현무암과 석회암으로 되어 있으며, 망자의 넋을 위로하는 아이 형상의 석상으로서 다양한 형태의 조형미를 지니고 있다. 투박하고 서민적인 간결한 표현방식으로 제주 고유의 정서를 담아내는 독특한 기념물이자 제주를 대표하는 또 하나의 이미지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어 제주동자석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제주동자석의 시대적인 배경으로 추정되는 조선시대의 머리모양이 제주동자석의

---

\* 제주한라대학교 뷰티아트과 교수

머리모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문헌, 논문, 서적, 인터넷 자료 등을 통해 고찰하였다. 또한 제주동자석의 동시대적인 배경으로 이해되는 조선시대의 다양한 머리모양들을 고찰하고 제주동자석과 비교·분석함으로써 조선시대의 머리모양이 제주동자석에 어떻게 형상화하였는지를 확인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나타난 공통의 머리모양(쌍상투, 쪽진 머리, 땡기머리)을 작품으로 제작하였다. 이를 통해 조선시대의 머리모양이 제주동자석의 머리 모양에 많은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었고, 머리모양은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종교적인 환경의 변화에 따라 각기 독특한 유형으로 변화·발전되어 왔으며, 제주동자석이라는 조형물에도 그대로 반영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헤어디자이너는 인체에 이루어지는 행위 예술로서 영구적으로 보존되어지는 디자인이 아니다. 그러므로 보다 섬세하고 과학적이며 심미안적인 디자인의 개발과 그 기술적 정립이 끊임없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제주동자석의 헤어디자이너 연구를 통해 현대인들의 차별화 되고 독창적인 헤어디자인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다양하고 예술적인 연구가 지속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주제어 : 제주동자석(濟州童子石), 헤어디자인(hair design), 조선시대, 쌍상투, 쪽진 머리, 땡기머리**

## I. 서론

머리를 장식하는 것은 미에 대한 기본적인 욕구중 하나로 남녀노소, 신분고하를 막론하고 인간이 갖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더욱이 머리모양은 이미지를 쉽고 빠르게 변화시킬 수 있는 부분으로(이종숙, 2012) 인종, 풍토, 그 시대의 미의식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민족, 종교, 정치, 성별, 연령, 직업과 신분 등을 나타내며 여러 가지 상징성을 갖고 있다. 인간은 그 주위를 둘러싼 환경에 의해 지배를 받아 왔으며, 그 환경을 이루는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종교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머리양식은 각기 독특한 유형으

로 변화, 생성, 발전되기 때문에 우리는 수많은 머리양식을 통해서 내적으로는 그 사회가 처한 문화, 사상, 가치관, 미적 의식 등을 알 수 있다(조민희, 2004).

제주동자석(濟州童子石)은 어린아이의 모습을 하고 있는 동남(童男), 동녀(童女)의 형상으로 무덤가에 한 쌍으로 세워지는 약 30~100cm 크기의 사람 형태를 지닌 조형물이다. 일반적으로 동제석, 동석, 동주석, 동제상, 애기동자, 자석 등으로 지역에 따라 약간 다르게 부르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동자석이라고 부른다. 동자석은 현무암과 석회암으로 되어 있으며, 조상의 시중을 드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동자석의 동(童)은 아이(Child), 종(Slave)이라는 이중의 뜻을 가지고 있으며 본래의 뜻은 남자종을 의미한다고 하였다(김유정, 2003). 또한 동자석은 귀족적, 권위적 문화의 소산이 아니라, 서민적인 석상이며 남, 녀의 구분이 없이 세워졌던 것으로 이해가 되고 있다(강창언, 1990).

하지만 이러한 가치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제주동자석(濟州童子石)에 대한 실제 규명이나 현존하는 석상들의 상태나 가치 등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며 일반적으로 조형성에 중심을 두고 접근한 미술사적 연구(이영배, 1999; 강창언, 1990 ; 김영익, 김민철, 2005; 김성은, 2002)와 비석을 통해 피장자의 사망, 장례일 등을 중심으로 편년을 추측하고 역사적으로 접근한 연구(이창훈, 2008; 이창훈, 2009)가 있었다.

최근에는 서민적이며 강한 지역적 특성을 나타내는 조각품으로서의 그 가치와 중요성이 새롭게 대두되면서 제주동자석(濟州童子石)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제주동자석(濟州童子石)의 머리모양에 대한 자료와 연구는 극히 미비하고 체계적인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제주동자석의 제작시기로 추정되는 조선시대에 대한 이해를 통해 제주동자석의 머리모양을 유추해 볼 수 있는 문헌, 논문, 서적, 인터넷 자료 등의 문헌연구를 하고자 한다. 또한 제주동자석의 배경으로 이해되는 조선시대의 다양한 머리모양들을 고찰하고 제주동자석과 비교·분석함으로써 조선시대의 머리모양과 제주동자석의 머리모양의 공통점을 찾아내어 헤어디자인 작품으로 제작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제주동자석의 머리모양이 조선시대의 머리모양을 반영한 조형성을 갖춘 예술품으로서, 현대적인 재해석을 통한 미적 가치의 창작활동으로서 헤어디자인 연구의 기초 자료가 되었으면 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제주동자석의 출현배경

제주지역 동자석의 유래는 15세기의 육지에서 들어온 것으로 판단되는 화강암 문인석으로부터 시작되어 16세기의 제주현무암으로 만든 제주형문인석으로 전개 되며 17세기에 제주지역에 문인석·동자석이 동시에 전개되다가, 17세기 말부터는 최소한의 석인상으로서 동자석만 만들어지게 되는 과정을 거친다. 제주지역 동자석은 위치상으로 볼 때 서울경기지역 사대부 묘의 동자석과 같은 위치(상석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시작되므로 본토의 동자석에서 영향을 받아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서울경기지역 동자석의 형



태적 특징이 제주지역 동자석에 거의 나타나지 않으므로 그 영향은 적으며 조선시대 제주지역 장례문화와 사회적 특징을 반영한 제주형 동자석으로 자리 잡게 된다. 조선시대 제주지역의 사회적 특징은 제주지역 동자석의 복식, 머리형태, 지물 등에서 그 사실성이 확인되는데 이 사실성은 17,18세기 제주지역 인물들의 모습이 동자석에 나타나는 것에 기인한다.(강윤희, 2012).

초기의 제주 석인상들은 크게 문인석(文人石)과 동자석(童子石)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 개체 수는 매우 적지만 문인석이 먼저 출현하였고, 이후 1600년대에 들어서면서 동자석이 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주동자석이 제작된 시기를 살펴보면 미술평론가 김유정(2003)에 의하면 “조선시대 유교문화에서 출발하여 발흥기로 15세기~17세기로 성리학의 전파를 통해 새롭게 대두되는 시기이고, 동자석이 가장 융성했던 시기는 조선 후기로 접어들면서부터 18세기~19세기까지로 보았다. 이 시기의 동자석은 형태가 다양하고 양식적으로 제주적인 형상이 정착화 되며 수준 높은 동자석이 가장 많이 제작된 시기이다. 쇠퇴기는 20세기~1970년까지로 동자석의 양식도 점차 각주형이거나 표현이 조약해지기 시작하고, 1970년대 이후엔 기계가 등장하면서 정형화된 양식으로 굳어져, 동자석의 종류도 다양하지 못한 소멸기로 접어들었다” 고 설명하고 있다.

제주 고유의 조형미를 갖춘 제주동자석의 출현과 제작시기를 정리한 자료는 <표1>과 같다(강윤희, 2012).

<표1> 제주동자석의 출현 및 제작시기

분류	15세기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	20세기
시자석인	■	■				
동자석인		■	■	■		
불교 명부전 동자상			■	■		
제주동자석			■	■	■	■

(자료: 강윤희(2012). 조선시대 제주지역 동자석 연구)

또한 강윤희(2012)는 조선시대 제주지역의 제주동자석을 비석을 통해 절대 연대를 알 수 있는 편년자료와 연대를 알 수 없지만 형식을 참고 할 수 있는 비편년 자료로 분석을 통해 제주지역 동자석 특징을 정리하였다. 제주지역에서 비교적 절대연대가 확실한 동자석은 대표적으로 <표 2>와 같다.

1차로 분석한 동자석은 207개이다. 이 동자석은 피장자의 사망이나 장례 시기가 확인 가능하여 석물을 세운 시기를 추정해 볼 수 있는 것들이다. 207개 중에서 17세기 동자석은 12개, 18세기 동자석은 69개, 19세기 동자석은 83개, 20세기 동자석은 43개이다. 편년별로 형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머리 형태를 살펴보면, 17세기에 12개 동자석 중에 머리 형태가 확인 가능한 것은 8건이며 쪽진 머리 1건, 쪽진 머리 아래 두 가닥 땡기를 드린 머리 2건, 민머리 2건, 땡은 머리 2건, 쌍상투 1건이다. 18세기는 69개 중에서 쪽진 머리 2건, 쪽진 머리 아래 두 가닥 땡기를 드린 머리 6건, 민머리 1건, 땡은 머리형 32건이다. 19세기는 민머리가 7건 땡은 머리가 38건이다. 20세기는 민머리 7건, 땡은 머리형이 18건 보인다. 전체적으로 땡은 머리형이 89건으로 가장 많고 민머리 17건, 쪽진 머리 아

래 두 가닥 땡기를 드린 머리 8건, 쪽진 머리 3건으로 집계된다. 개체수가 부족하지만 17,18세기에는 탐라순력도에서 보이는 쪽진 머리보다 쪽진 머리 아래 두 가닥 땡기를 드린 동자석이 더 많이 보이며, 19, 20세기에는 보이지 않는다. (강윤희, 2012).

<표 2> 제주지역 동자석 조사표

연번	사망연대	구분	묘주/처	직위	동자석 형태		
					머리모양	지물	복식
1	1632	17C	김만일	오위도 총부도총관	민머리	공수	허리띠
2	1658	17C	김대진	감목관	땡은머리 윤곽	손	포의 여밈
3	1668	17C	김대길	감목관	민머리	홀	허리띠
4	1694	17C	김시용	통사랑	쪽땡기 땡은머리 윤곽	술잔	소매
5	1696 /1757	17C /18C	이세훈/ 탐라고 씨	가선대부	땡은 머리 형	공수에 홀	허리띠
6	1718	18C	김성우	유향좌수	땡은 머리	주걱형	-
7	1768/ 1787	18C	김응현/ 양천허 씨	통정대부	땡은 머리	-	-
8	1757/ 1751	18C	김진해/ 홍씨	전력부위	-	공수(拱手)	허리띠
9	1742	18C	김치집	유향별감	땡은 머리형	주걱형	뒷면 허리띠 앞면 옷자락
10	1754	18C	김택우	통덕랑	땡은 머리형	공수(拱手)	-

연 번	사망 연대	구분	묘주/처	직위	동자석 형태		
					머리모양	지물	복식
11	1760	18C	김혜우	선략장군	똥은 머리형	공수(拱手)	허리띠 옆면 소맷 자락
12	1746	18C	오세부	유향좌수	똥은 머리형	홀	-
13	1696/ 1757	17C 18C	이세훈/ 탐라고 씨	가선대부	똥은 머리형	공수에 홀	허리띠
14	1708/ 1707	18C	이윤/탐 라고씨	훈원원관 관	-	공수에 홀	-
15	1888	19C	고광득	통정대부	똥은 머리	숟가락	-
16	1885	19C	고방인	학생	-	요령	-
17	1810/ 1816	19C	김명환/ 경주김 씨	유향좌수	똥은 머리/ 두 갈래 땡기	주걱형	허리띠

(자료: 『죽은 자 또는 산자의 공간'무덤』, 『제주동자석』 등 참고)

편년을 추정할 수 있는 자료들 이외에 제주도 박물관과 관광지의 동자석들을 분석한 자료이다. 제주도 박물관과 관광지 중에서 가장 많은 개체수를 소장하고 있는 곳은 제주돌문화공원이다. 제주돌문화공원의 동자석을 분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편년을 알 수 있는 자료는 아니지만 제주돌문화공원 전체 250개 <그림 1> 중에서 186개를 먼저 살펴보면 머리 형태는 똥은 머리 153건, 쪽진 머리에 땡기를 드리운 것 1건, 쪽진 머리 1건, 민머리는 27건이다. 186개의 개체 중에서 182개가 머리 형태를 표현하고 있고 나머지는 머리 표현이 없다(강윤희, 2012).



<표3> 제주돌문화공원 동자석 분석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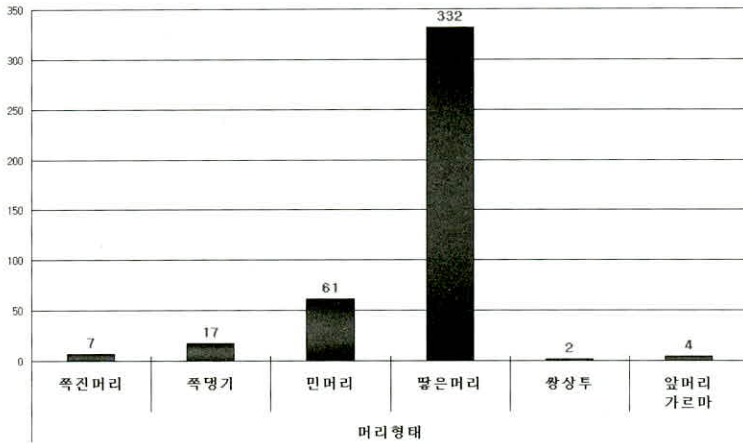
연 번	둘레	가로	세 로	동자석 형태			
				귀모양	머리모양	지물	복식
1	58	18	36	반원형	뺨은 머리	홀	-
2	65	16	47	반원형	뺨은머리	창	-
3	62	17	46	타원형	뺨은 머리 윤곽	창	-
4	59	15	47	타원형	뺨은 머리 윤곽	술잔 추정	-
5	70	24	45	반원형	쪽진 머리에 댕기	공수(拱手)	-
6	76	24	46	반원형	뺨은 머리	공수(拱手)	-
7	64	21	49	타원형	두 갈래 댕기	공수(拱手)	웃고름 확인
8	69	19	48	타원형	두 갈래 댕기	공수(拱手)	-

(자료: 제주돌문화공원 야외 동자석 실측 자료 )

뺨은 머리 형태는 여러 가지로 표현되는데, 머리의 뺨은 모습을 표현한 것이 24건이고, 뺨은 모습처럼 보이기 위해 윤곽선만으로 표현한 것이 58건이다. 뺨은 머리 아래 두 가닥이나 세 가닥의 댕기를 드린 것이 12건이고, 둥근 머리의 표현이 있지만 댕기나 꼬임, 쪽이 없는 것은 민머리로 분류했는데 이는 9건이 있다.

편년을 알 수 없는 동자석의 머리 형태를 합한 통계를 <표4>와 같이 제시하였다(강윤희, 2012).

<표 4> 편년, 비편년 전체 통계 중 머리 형태



<출처: 강윤희(2012), 조선시대 제주지역 동자석 연구

**제주시 지역 동자석 분포도**



[그림 1] 제주대학교 박물관 자료, 제주시 지역 동자석 분포도

## 2. 제주동자석의 머리모양

초기의 제주 석상들은 조각기술이 매우 섬세하고 세밀한 표현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특징이며 얼굴부분의 세부표현도 인체와 비례하게 조각되지만 1700년대로 접어들면서 점차 표현이 간소화되고 변형되어 사람의 형상과 다른 분위기도 느끼게 된다. 제주동자석의 두상부는 대개 타원형이나 원형, 장방형의 얼굴모양을 하며 두상부의 후면부에는 다양한 머리 표현 형식들이 나타난다. 제주동자석의 머리모양은 크게 민머리형이나 땡기형, 변발형, 쪽진 머리 형태로 나눌 수 있으며 주로 양각이나 음각의 땡기를 표현한 땡기형과 입체적인 양각으로 표현한 쪽진 머리형, 육지의 영향에 의한 쌍상투형으로 세분화 할 수 있다(이창훈, 2008).

강윤희(2012)의 연구에서도 제주동자석의 머리 형태는 땡은 머리, 쪽진 머리, 민머리, 쌍상투 등으로 구분하였고 땡은 머리 형태의 동자석이 가장 많은 개체수가 발견되었다. 땡은 머리 형태의 동자석은 크게 땡은 머리와 땡은 머리 아래 땡기를 드리우는 방법 두 가지로 표현된다. 땡은 머리 형태는 여자아이, 남자아이에게서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등장하는데, 시중을 드는 것은 혼인하지 않은 남자아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된다. 『탐라순력도』에서도 관노(官奴)인 악동들 중에서 땡기머리와 상투머리의 피리를 부는 악공이 있는데 이는 나이 어린, 혼인을 하지 않은 남자가 땡기 머리를 한 것이다. 고원방고, 산방배작, 대정양노에서 땡은 머리의 한 총각이 피리를 불고 있다. 동자석에서의 땡은 머리 형태는 혼인하지 않은 나이 어린 남자와 여자를 표현한 것이다.

## 1) 쌍상투형 동자석

16세기 중엽부터 출현하는 동자석의 양식은 초기 사대부 묘에서 비롯되어 점차 정형화되어 일반 민묘에 까지 굳어져 갔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문인석에 비해 동자석들은 두상부(頭狀部)가 크게 표현되며 동자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다. 초기 석상들은 대부분 두상부가 신체(身體) 비례에 비해 크고 쌍상투를 들고 있으며, 제주시에 있는 동자석은 명확한 쌍상투를 들고 있으며 대략 1670년대에 설치된 것으로 보이며 현무암으로 제작하였다. 애월읍 부씨 묘역의 동자석 1쌍도 쌍상투를 하고 있으며, 조각표현이 섬세하고 좌우 대칭적인 구조로 잘 다듬어진 동자석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제주시 오라동에 있는 通政大夫李公之墓의 조면암 동자석도 쌍상투 머리 형태를 보여주며 대략 1600년대 후반에서 1700년대 초의 석상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그림 2]



애월읍 부씨묘



通政大夫李公之墓

[그림 2] 쌍상투형 동자석, 자료 : 이창훈(2009), 제주 동자석 고찰

## 2) 쪽진 머리형 동자석

강윤희(2008)는 [그림 3]에서 쪽진 머리 형태의 동자석은 단순히



둥글게 머리를 말아 어깨 아래로 내린 형태뿐만 아니라 쪽진 머리 아래 쪽 댕기까지 다는 모습도 확인이 되며 드물게 곱으로 쪽진 모습을 표현한 동자석도 있다고 하였다.



쪽진 머리	쪽진 머리	쪽댕기-두 가닥	쪽댕기-한 가닥
화북동 탐라성주 묘 -고봉례(高鳳禮)묘 추정지 발견(미상)	청주한공 묘 (通政大夫淸州韓公) (1617 ~ 1692)	김번(金幡)묘 (1629 ~ 1698)	김진욱(金振煜)묘 (1632 ~ 17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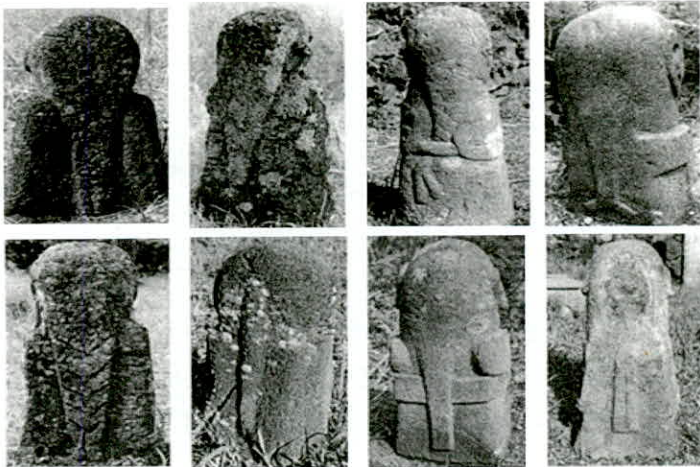
〔그림 3〕 김유정 『아름다운 제주석상 동자석』 외, 사진 참고

머리 모양의 표현에 있어서 초기의 석상들 중 다수에서 ‘쪽진 머리’형태의 표현을 볼 수 있는데, 이는 동자석의 성별 표현이 초기에는 시녀(결혼한 여자)들을 표현하였으나 조선시대 후기(19세기 이후)로는 쪽진 머리형의 석상을 거의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일반적인 댕기표현이 많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이창훈, 2009; 강운희, 2012).

### 3) 댕기머리형 동자석

강운희(2012)는 땡은 머리 형태의 동자석이 가장 많은 개체수가 발견되었고 땡은 머리 형태의 동자석은 크게 땡은 머리와 땡은 머리 아래 댕기를 드리우는 방법 두 가지로 표현되며 땡은 머리 형태

는 남자아이, 여자아이에게서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등장하며, 시중을 드는 것은 혼인하지 않은 나이 어린 남자와 여자를 표현한 것으로 해석했다. [그림 4]에서와 같이 땡기머리를 표현한 경우는 양각이거나 음각, 땡은 머리의 표현이 민무늬이거나 X자형, 교차X자형, 민머리형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조선시대의 미혼 남녀의 일반적인 머리모양이 길게 땡아 늘인 후 땡기를 묶었다는 내용과 일치하며 제주동자석의 경우에도 땡는 모양과 땡기의 위치 등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를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4) 다양한 '땡기머리'형 동자석, 자료: 이창훈(2009), 제주 동자석 고찰

조운득(1987)의 연구에서도 동자석의 두발(頭髮)은 좌우대칭의 구도 속에 땡아 늘인 머리, 길게 늘인 머리, 민머리 세 가지 형식을 취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림5>는 두발(頭髮)을 세 가닥으로 땡은 옛 처녀, 총각의 머리로 땡아 늘인 머리 양식이며, <그림6>은 땡아 늘인 머리의 끝부분에 땡기를 달아 장식적인 효과를 내기도 하였다. 땡아 늘인 머리는 좌우 대칭의 중심에 두발이 하단으로 갈수록 좁

아지면서 두발의 끝부분을 두 갈래로 나누었으며, 사실적이며 장식적인 표현으로 도식적인 선(線) 위주로 표현되었다. <그림 7.8.9>는 길게 늘인 머리 양식으로 동자석 중 가장 많이 찾아볼 수 있다. 두발(頭髮)을 귀 뒤로 모아 길게 늘어뜨려 후면의 단조로움을 없애주며 측면에서의 거리감을 주고, 후면의 중앙에 있어 좌우대칭의 중심을 이룬다. <그림10>은 길게 늘인 머리를 의상(衣裳)과 두발(頭髮)의 구분을 위해 단지 선각(線刻)으로 음각(陰刻)하였는데 추상적으로 도식화된 특징이라 볼 수 있으며 형식화 된 의습과 통일된 양식으로 표현되었다. 민머리 양식은 <그림11, 12>처럼 머리에 어떤 장식도 없이 아이들의 깎은 머리처럼 표현되고 있다.



[그림5] 세가닥 땡은머리



[그림6] 땡은 머리, 땡기



[그림7] 길게 늘인 머리



[그림8] 길게 늘인 머리



[그림9] 귀 뒤로 늘인 머리



[그림10] 길게 늘인 머리



[그림11] 민머리



[그림12] 민머리

자료: 조윤득(1987), 제주 석상에 관한 연구

### 3. 조선시대의 머리모양

삼국시대와 고려를 거쳐서 조선시대에 이르는 동안 여인들의 머리모양은 아름답게 꾸미고자 노력하며 개선 발전시켜 왔다.

조선시대 초기 여인의 머리모양은 신분과 계급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고려시대의 머리모양이 그대로 받아들여져 엷은머리, 쪽진 머리, 푼기명 머리, 묶은 중발머리, 쌍상투, 가체를 이용해서 만든 고계 등이 있었다. 이러한 머리 형태는 고려시대를 거치면서 대체로 습용되어 왔으며 조선시대에 와서는 기혼녀는 엷은머리, 쪽진 머리를 하였고, 미혼인 경우는 남녀가 다 같이 묶은 중발머리, 땡은머리를 하였고 기혼인 경우에는 남성은 상투, 여성은 엷은머리, 쪽진머리 등 다양한 형태의 머리모양을 하게 되었다.(김재순, 2007)

조선시대 여인의 머리모양은 대수머리, 어여머리, 큰머리(띠구지 머리), 첩지머리, 조짐머리, 새양머리, 엷은머리, 쪽머리, 땡은 머리 등이 있었다. 이를 초기·중기·후기로 나누어 머리모양을 비교 분석한 결과, 초기에는 고려시대의 수발양식의 영향으로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의 머리모양이 혼재하였으며, 중기에는 가체가 커짐에 따라 머리를 화려하게 연출한 다양한 머리 형태가 나타났다. 이후 후기에는 가체의 크기가 커짐에 따라 가체로 인해 사치와 재정적 낭비가 심해져 가체를 금하여 머리 형태가 간소하고 단아한 형태로 변화하였다.<표 5 >

#### 1) 큰머리·어여머리·대수머리·첩지머리

큰머리는 궁중에서 의식 때 하던 머리모양으로 어여머리 위에 ‘띠구지’라는 나무로 만든 큰머리를 얹어 놓은 것이며, 정조 때



가채금지를 위해 궁중에서부터 가채를 금하고 나무로 틀을 만들어서 얹게 하였다. 그래서 큰머리를 띠구지머리라고도 하였다(김재순, 2007).

어여머리는 예장할 때 머리에 얹는 ‘다래’로 된 커다란 머리를 말하는데, 머리숨족두리(어엄족두리)를 쓰고 그 위에 ‘다래’로 만든 큰머리를 얹어 옥반과 화관으로 장식하였다. 이 어여머리는 큰머리에 버금가는 예장용으로 궁중에서나 반가 부녀들이 하였고 상궁으로서는 지밀상궁만이 하였는데, 이를 또한 ‘또야머리’라고도 하였다(유희경, 1993).

첩지머리는 왕비나 내인 등 궁중 여인들이 평상시에 하거나 외명부가 입궐할 때 당의를 착용하고 하는 머리 형태이다. 첩지라 함은 황비는 광금(鑲金)으로 봉을, 내명부·외명부는 광금이나 은 또는 흑각으로 개구리를 만들어 좌우로 긴 머리털을 단 것을 말한다. 이 첩지를 가르마 가운데 중심을 두고 양쪽으로 뿔아 뒤에서 머리와 한데 묶어 쪽을 진 머리모양이다. 궁중에서는 평상시에도 첩지머리를 하고 있었으며 신분의 상하를 구분하기도 했지만 족두리나 화관을 쓰기 위한 준비이기도 했다.(김재순, 2007).

## 2) 얹은머리

얹은머리는 삼국시대 이래 부녀들의 기본 머리 형태로 일명 트레머리라고 하는데 자기머리만으로 빗어 올린 얹은머리와 다른 사람의 머리카락인 가채를 얹어 모양을 만들어서 얹은머리라 한다. 사치풍조가 심해져 영·정조 시대에 체계금지령이 내려지면서 궁중과 양반 부녀의 얹은 머리는 차차 사라지고 쪽머리와 족두리로 변형되어 일반 부녀자들은 자신의 머리카락만을 이용해 얹은머리를 하였

다(조미영, 2002). <표 6 >은 엷은 머리 가운데 거문고 줄을 고르고 있는 모습으로 기녀로 보이며 머리를 땀아서 위로 올려 본 발에다가체를 더하여 올린 듯한 부피감을 느낄 수 있으며, 왼쪽은 신윤복의 미인도로 가체금지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머리카락으로 만든 커다란 가체를 틀어 머리를 올려서 아름답게 보이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 3) 쪽머리(北髻, 後髻, 娘子머리)

쪽머리는 그 역사가 가장 오래된 것으로 북계(北髻), 후계(後髻), 낭자(娘子)머리, 월자반발(月子盤髮)등으로 불리며, 최근까지도 노년층에서 볼 수 있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머리양식이다(손미경, 2008).

결혼한 부녀자의 일반적인 머리 형태로 두발을 뒤통수에 낮게 묶어 하나로 모아 머리 뒤에 짓는 것이다. 조선시대의 쪽머리는 조선 초기에는 보이지 않고 중기에 나타난다. 조선 초기에 가체의 사치가 도에 넘어서자 영조 33년 12월에 ‘부녀자의 체계를 금하고 후계, 즉 쪽머리로 대신하라’는 령을 내린다. 그 후 영조 39년에 체계금계령 해제로 개혁이 중단된다. 그러나 정조가 즉위하면서 선대 영조의 유지를 이어받아 정조 12년에 ‘가체신금절목’을 작성하여 엷은머리를 금하고 ‘쪽머리’와 ‘장식이 없는 족두리’를 하도록 한다. 단 공사천(公私賤)의 엷은머리는 허용하되 가체를 붙이지 못하게 했다(전선정 외, 2001).

### 4) 쪽진 머리(상투, 쌍계, 쌍수계, 삼상투, 환계, 새앙머리, 남자쌍계)

쪽머리와 다른 쪽진 머리로는 상투, 삼상투, 쌍계(雙髻, 쌍상투), 쌍수계(雙垂髻), 환계(環髻), 새양머리, 남자쌍계 등이 있다. 상투란 머리를 정수리에 하나로 묶어 말아 손잡이 형태로 만든 것이고, 삼상투는 이런 상투를 머리 위쪽에 세 개를 들어 놓은 것이다. 또한 쌍계(쌍상투)는 머리 좌우의 윗부분에 두 개의 상투를 만든 것이고(손미경, 2004), 환계란 고리모양의 머리로 큰머리와 같이 머리를 고리모양으로 만들어 위나 아래에 붙인 것인데, 큰머리와와의 차이점은 큰머리가 고리를 위로 만든 신분이 높은 사람의 머리 형태라면, 환계는 고리의 크기가 다소 작고 아래나 위로 다양하게 고리를 만든 시녀나 평민이 주로 하던 머리 형태라는 것이다(안현경, 2008).

새양머리(생머리)는 미혼녀들이 하던 머리 형태로 일명 사양계(絲陽髻)라고 한다(강태임, 1995). ‘생’이란 문헌에는 ‘사양(絲陽)’이라고 나오며 남자 아이들의 쌍상투에 해당한다. <표 6> 에서와 같이 조선후기의 작품인 ‘동래부사접외사도’는 동래부에 도착한 일본사신을 맞이하는 행사를 재현한 그림이다. 말을 탄 두 여인의 뒷모습에서 새양머리를 확인할 수 있고 길게 늘어뜨린 땃기가 유난히 돋보이는 그림이다. (손미경, 2008).

남자쌍계(娘子雙髻)도 미혼녀의 머리모양으로 머리를 좌·우 둘로 갈라 아래에서 땀아 좌우로 두 개의 쪽을 진 형태이다. 궁중에서는 쌍계에 땃기를 물리는 반면, 민간에서는 비녀를 꽂아 남자쌍계 또는 새양낭자라 했다(강태임, 1995)

<표 6> 의 보물 제1328호 기영회도(耆英會圖)의 기생머리가 남자쌍계의 형태로 보인다.

## 5) 땃은 머리(辮髮)

조선시대의 땃은 머리는 미혼녀의 보편적인 머리형으로 땃기머리 또는 귀밑머리라고도 한다. 조선후기 풍속화가 신윤복의 그림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머리모양으로 이 시기의 미혼남녀들의 대표적인 머리모양이 땡은 머리임을 알 수 있다. 땡아서 길게 늘어뜨린 모양이 유행이어서 가체를 더해서 치장을 하기도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표 5 > 조선시대 여인의 머리형태의 종류별 기원과 변천과정

머리형태	기원	변화과정	
고 계	대수머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려후기(공민왕 19) 명나라 효자황후가 보내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선 : 조선 초부터 계속해서 사용했으며, 인조 이전에 적관을 사용하였으나 그 뒤 국속으로 장식, 가례시에 많은 양의 가체를 이용하여 만들어 문제가 됨</li> </ul>
	큰머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구려 고국원왕릉 왕비의 큰머리 : 중국 고계가 유입된 것으로 보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선 초기 : 고구려 이후 문헌과 그림에 보이지 않으나, 세조원년에 명사신 윤봉이가 가져온 면복계양이 큰머리로 이때부터 조선에서 다시 사용된 것으로 보임</li> <li>• 조선 중기 : 가례, 길례 등에 사용된 가체의 양이 너무 많아 문제가 되어, 정조3년 비빈공주는 두발로 된 가체를 사용하되, 내인들은 나무로 만든 띠구지를 사용함</li> <li>• 조선 중기 : 조선 초, 중기까지는 바빈, 내명부 전용의 머리였으나 후기에 와서 내외명부의 구분 없이 사용함</li> </ul>
	어여머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선초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선 초기 : 외명부가 입궐할 때, 의식에 사용</li> <li>• 조선 중기 : 정조12년 가체신금절목-명부사용, 민가에서 잔치와 혼례에 사용</li> <li>• 조선 후기 : 바빈, 내외명부 모두 사용</li> </ul>
	없은머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삼한 부인의 없은머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선 초중기 : 조선시대 초기부터 명제궁양의 영향을 받은 커다란 없은머리가 문제가 되어 영.정조시대부터 가체를 이용한 없은머리를 금하기 시작함</li> <li>• 조선 후기 : 조선 후기 순조시대 부터는 다래를 이용한 없은머리가 사라지고 풀머리만 남음</li> </ul>



머리형태		기원	변화과정
쪽진머리	쪽머리	• 고구려 고분벽화신라의 기록에 나타남	• 조선 : 조선 중기 영정조 시대부터 사용되어, 침지머리, 조침머리등의 궁궐양식의 변형이 나타남
	그 외 쪽진머리 (상투, 쌍계, 쌍수계, 삼상투, 환계, 새양머리, 사양계)	• 위만 조선의 상투	• 조선 : 새양머리, 남자쌍계가 나타남
땅은머리		• 단군 조선의 땅은머리	• 조선 : 미혼녀의 보편적인 머리형태

<표 6 > 조선시대 여인의 머리형태

분류	머리형태		
큰머리, 어여머리, 대수머리			
	명성황후 어여머리	영왕비 대수머리	침지머리(권오창. 인물화로 보는 조선시대 우리옷)
없은머리			
	신운복, 미인도	신운복 작, 거문고 줄 고르기(국립중앙 박물관 소장)	권오창

쪽머리			
	쪽머리, 민화(조선후기)	쪽머리(1890)	쪽머리(권오창, 인물화로 보는 조선시대 우리옷)
쪽진 머리 (낭자쌍계, 새양 머리, 쪽댕기)			
	기영회도 (耆英會圖)	동래부사접의사도	이선우, 2013
땡은머리 (댕기머리)			
	신윤복(국립중앙박물관소장)	신윤복의 국화 옆에서	

### III. 제주동자석과 조선시대의 머리모양 비교 및 작품 재현

#### 1. 머리모양 비교

제주동자석의 머리모양과 조선시대 머리모양의 공통점을 찾기 위

해 비교 분석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제주동자석의 머리모양은 조선시대 머리모양 중 일반 미혼 남녀가 주로 했던 머리모양과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머리모양은 대수, 거두미, 어유미, 첩지머리, 새양머리, 엷은머리, 쪽머리, 귀밑머리, 트레머리 및 조짐머리 등이 있었다.

그중 제주동자석은 아이의 형상을 한 시중을 드는 미혼 남녀를 형상화 한 조각상이기 때문에 조선시대의 평민, 하류층 특히 미혼 남녀와 시중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했던 쌍계, 쪽진머리, 땡기머리 형태를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보여진다.

쌍계는 쌍상투 모양을 띤 머리형태로 제주동자석의 쌍계는 두상의 정상부에 두 개의 상투를 엷은 모양의 형태로 미루어보아 이는 남자 시중의 머리형태로 보여진다. 또한 조선시대 여인의 머리모양에서는 상투의 위치가 점점 아래로 내려와 목 주변에 두 가닥의 땡은 머리를 감아 상투를 틀 듯이 감아서 형태를 만들었고 이는 여자 시중의 머리형태로 보여진다.







쪽진 머리는 남자쌍계, 새양머리, 쪽땡기의 형태를 말하는데 제주동자석의 경우 새양머리의 형태를 띠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조선시대 여인의 머리에서도 남자쌍계에서 새양머리, 쪽 땡기 형태로 변화해 감을 알 수 있다. 이는 조선시대의 시대적인 상황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서 조선시대 후기로 갈수록 점점 단순화 되고 간편한 머리모양이 주류를 이루었음을 알 수 있었다.

땡기머리는 땡은머리, 귀밑머리라고도 하며 조선시대 대표적인 미혼 남녀의 머리모양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제주동자석과 조선시대 머리모양에서도 공통적인 머리모양이며 땡은 머리 끝 또는 중간쯤에 땡기를 묶어 장식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제주동자석의 제작시기를 정확하게 알 수

는 없으나 현존하는 동자석의 머리모양으로 살펴 보았을 때 조선시대의 전기, 중기, 후기 모두 제작되었음을 짐작해 볼 수 있었으며 특히 중기이후의 시대적인 상황이 반영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향후 더 많은 자료수집과 분석을 통한 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 표 7 > 제주동자석과 조선시대 머리모양 비교

분류	제주동자석	조선시대 여인
쌍계(쌍상투)		
쪽진 머리 (낭자쌍계, 새암머리, 쪽대기)		
댕기머리 (땡은머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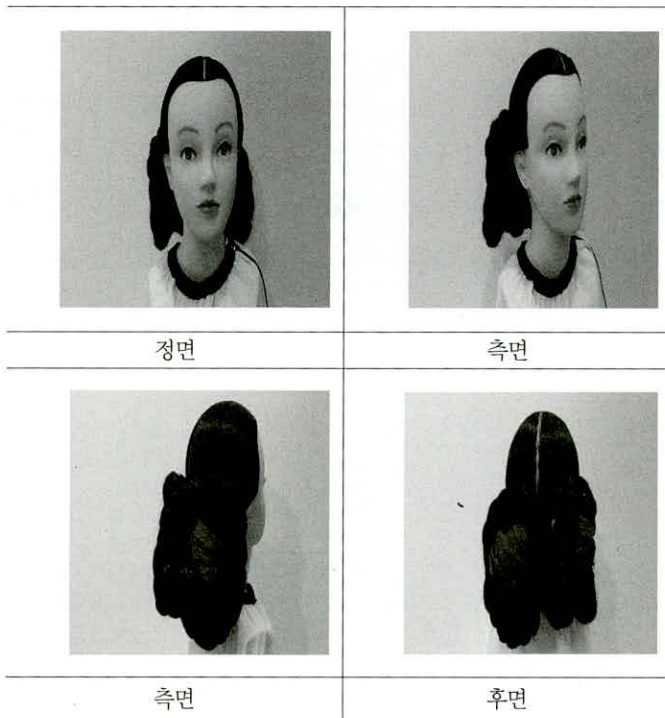


## 2. 작품 제작 재현

### 1) 쌍계(쌍상투)

쌍계(쌍상투)는 머리 좌우의 윗부분에 두 개의 상투를 만든 것으로 제주동자석의 머리모양에서 볼 수 있다. 조선시대 여인의 머리에서는 두가닥으로 땀은 머리를 돌돌 말아 목선에서 상투를 틀 듯이 고정된 모양을 말한다. 여기에서는 후자의 형태로 헤어디자인 하여 재현해 보았다.

< 표 8 > 완성작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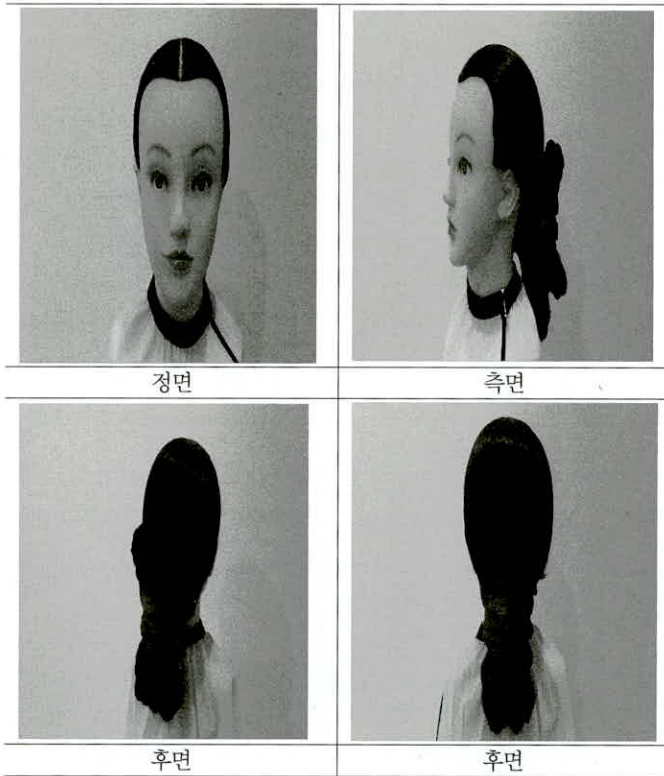


## 2) 쪽진머리(새앙머리)

미혼여성의 대표적인 머리 형태로 머리를 두 가닥으로 갈라서 각각 양쪽에 다리꼭지 두 개를 넣고 머리를 땅아서 내린 다음, 밑에서부터 말아 올려 머리 밑까지 올라가서 두 개의 쌍상투를 붙이는 양식이고 이 쌍계에 자주색 끈으로 중허리를 우선 묶은 다음, 이 위에 비단 땁기를 늘였다.

만드는 방법은 머리를 두 가닥으로 갈라서 각각 양쪽에 다리꼭지 두 개를 넣고 머리를 땅아서 내린 다음, 밑에서부터 말아 올려 머리 밑까지 올라가서 두 개의 쌍상투를 붙이는 양식이고 이 쌍계에 자주색 끈으로 중허리를 우선 묶은 다음, 이 위에 비단 땁기를 늘였다. 땁기는 쌍상투를 가릴 정도로 넓고 그 길이도 둔부까지 내려 올 정도로 길었을 뿐만 아니라 신분에 따라 땁기 감이나 그 위에 붙이는 장식에 차이가 있다. 호화스러운 땁기는 폭도 넓을 뿐 아니라 금박을 아래까지 찍어 그 위에 두 줄로 아래까지 무수히 많은 값비싼 보석을 붙였다(이주원, 1982).

< 표 9 > 완성작품



### 3) 땡기머리(땡은머리)

양쪽 귀 위의 귀밑머리를 땡아 뒤에서 모아 다시 변발하여 늘이고 끝에 땡기를 묶어서 연출하였다. 귀밑머리를 만드는 방법은 양쪽 귀 위의 귀밑머리를 땡아 뒤에서 모아 세 가닥으로 나누어 서로 엇갈리게 땡아 다시 하나로 엮어 늘이고 끝에 땡기를 드리는 것으로 머리채가 긴 것을 자랑으로 삼아 이에도 가체를 하였으며, 반가의 규수들은 귀밑머리로 귀를 가리고 일반 처녀들은 귀를 가리

지 았았다(강태임, 1995)

< 표 10 > 완성작품



#### IV. 결론

동자석은 무덤 앞 좌, 우편에 마주보거나 나란히 세워져 있는 석상으로 죽은자의 영혼을 위로하고 그 터를 지키는 지신이라 말할 수 있다. 곧 죽은 자의 시중을 듣기 위해 살았을 때 좋아했던 술,



떡과 같은 음식물이나 꽃, 창과 같은 상징물 등을 들고서 봉분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하는 사람 형태를 지닌 조형물이다.

이러한 제주동자석이 전통문화유산으로 자리매김 되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본 연구는 제주동자석의 출현 배경과 머리모양을 살펴보고 제주동자석 제작의 시대적 배경이 되었던 조선시대의 머리모양과 비교하여 공통적으로 나타났던 머리모양을 직접 제작하여 재현해 보았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제주동자석의 머리 모양은 초기에 쌍상투 모양을 볼 수 있었고, 쪽진 머리와 쪽 댕기 모양이 나타났으며, 점차적으로 다양한 댕기 머리(땡은머리) 형태로 변화 되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조선시대의 머리 모양은 대수, 거두미, 어유미, 첩지머리, 새양머리, 엷은머리, 쪽머리, 귀밑머리, 트레머리 및 조짐머리 등이 있었으며 시대적인 변천사를 통해 신분제에 따라 머리모양이 차이가 있고 조선후기에는 가체를 금하면서 머리 모양이 대체적으로 간소화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제주동자석의 머리 모양과 조선시대의 머리 모양의 공통점은 쌍상투, 쪽진 머리, 댕기머리, 쪽머리 등의 머리 모양을 하고 있었으며 이는 조선시대의 시대적인 상황이 제주동자석의 머리모양에 그대로 반영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제주동자석과 조선시대의 공통된 머리 모양을 제작 재현함으로써 현대적인 헤어디자인으로의 적용 가능성을 모색하고 현실화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제주동자석의 제작시기와 표기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편년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한계로 인해 조선시대의 시기별(전기, 중기, 후기) 변화된 머리모양과의 연관성을 설명하는데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향후 연구에서 좀 더 많은 자료와 문헌고찰 등을 통해 제주동자석의 편년을 확인할 수 있었으면 한다. 또한

제주동자석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역에 걸쳐 분포되어 있는 동자석의 머리모양 연구를 통해 벽화와 풍속화, 문헌 위주의 연구에서 좀 더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졌으면 한다. 제주동자석의 머리모양과 조선시대 머리모양이 현대적인 헤어스타일의 연출과 헤어디자인의 적용에 작은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

## 참고문헌

- 김영익, 김민철, 2005. 「돌하르방과의 비교를 통한 동자석의 가치제고와 동자석의 지물 연구를 통한 설치의 동기분석」.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 주강현, 1996. 『우리문화의 수수께끼』 한겨레신문사. 148.
- 김유정, 2003. 『아름다운 제주석상 동자석』. 파피루스. 70~71.
- 이창훈, 2009. 「제주동자석 고찰」. 제주발전연구원·사단법인 제주학회.43-73
- 이창훈, 2008. 『특집3-위기의 향토 유산 제주 동자석』 제14호. 제주문화원.
- 이영배, 1999. 『묘지석상의 조형적 특징 고찰-동자석의 제작과 형태비교 중심으로』. 제주도민속자연사 박물관.
- 강창언, 1990. 「제주도의 동자석연구-분포와 형태를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 김성은, 2002. 「제주도 돌문화와 조형디자인에 관한 연구: 동자석을 중심으로」. 제주대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강윤희, 2012. 「조선시대 제주지역 동자석 연구」. 제주대학교석사학위논문.
- 조윤득, 1987. 「제주석상에 관한 연구-묘소의 동자석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재순, 2007. 「조선시대 여성의 머리 모양에 관한 연구」. 남부대학교석사학위논문.
- 권오창, 2002. 『인물화로 보는 조선시대 우리옷』, 현암사.
- 조미영, 2002. 「조선시대 여성의 머리 형태에 관한 연구」. 한국인체예술학회지 3(3)
- 조효순, 1986. 「조선조 수복의 풍속사적 고찰」. 복식 10권. 17-36
- 조민희, 2004. 「조선시대와 중국 여성의 수발양식」. 한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손미경, 2004. 『한국여인의 鬢자취』. 이환.
- 손미경, 2008. 「고전머리의 실태와 문제점에 대한 미용사의 인식에 관한 연구」. 국제문화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안현경, 2008. 「한민족 여인의 전통 머리 형태 변천에 관한 연구」. 한국미용학회지 14(2). 한국미용학회. 239-257.
- 이종숙, 2012. 「일러스트에 나타난 르네상스 시대의 나라별 헤어스타일 연구」. 대한 미용학회지. 8(1). 55-66.
- 강태임, 1995. 「조선시대 부녀수발 양식에 대한 고찰」. 안성산업대학교 논문집 27권. 531-563.
- 이선재, 김정진, 2003. 『우리나라 여성의 머리양식사』. 신광출판사.
- 전선정 외, 2001. 『미용미학과 미용문화사, 청구문화사.
- 유희경, 1993. 『한국복식문화사』, 교문사.
- 이주원, 1982. 『한국복식』, 한국문화재보호협회.
- 국립민속박물관, 2007. 『죽은 자 또는 산자의 공간-무덤(조선시대 묘제 자료집).  
, 2007. 『제주의 민속문화-제주의 무덤』.
- 염경화, 2007. 「제주도 묘제 및 장례풍습 소고」, 『한국민속학 일본민속학』 III, 제주민속박물관.



Abstract

Study on the Hair Design of Jeju  
Dongjaseok(濟州童子石)

Kim, Chun-Il \*

Hair design is an art that creates on the material of hair utilizing line, shape, direction, and texture, i.e. decorating hair is one of basic desire for beauty, the most basic desire of human regardless of gender or age, and position. Moreover, hair style not only reflects the race, cultural climate, and the esthetic consciousness of the period, but also expresses the nationality, religion, politics, gender, age, occupation, and position, etc., which has various symbolization as an important factor that can understand all values that the society of that period pursued.

Jeju Dongjaseok(濟州童子石) is a human shape sculpture, about 30-100cm sized, built in pair beside a grave. Generally, they are made of basalt and limestone, which has various shapes of formative beauty as the stone statue in the shape of a child that consoles the soul of the dead. It has been acknowledged as a special monument that contains the original emotion of Jeju with crude and folksy as well as simple expression mode and another image that represents Jeju, therefore, interest in Jeju Dongjaseok is increasing.

Therefore, this research studied literature, theses, books, and internet

---

\* Professor, Department of Beauty Art, Cheju Halla University

material, etc. in order to investigate the influence of hair style of Joseon Dynasty, presumed as the period background of Jeju Dongjaseok, on the hair design of Jeju Dongjaseok(濟州童子石). Also, this research determined how the hair design of Joseon Dynasty was embodied in Jeju Dongjaseok(濟州童子石) by considering various hair styles of Joseon Dynasty which is understood as the same age background of Jeju Dongjaseok(濟州童子石) and comparing · analyzing Jeju Dongjaseok, based on this, produced a work of common hair style(twice topknot, bun, daenggi hair).

Accordingly, this research could determine that Joseon period hair style influenced hair style of Jeju Dongjaseok(濟州童子石) a lot, also, hair style has changed · developed as the unique type respectively along with social, political, cultural, and religious environment change, which had been reflected on the sculpture, Jeju Dongjaseok(濟州童子石) as they are.

Hair design is a performance art on human body, which is not permanently preserved. Therefore, it is continuously required to develop more delicate, scientific, and esthetic design and establish the technique thereof. Accordingly, the researcher expects that various and artistic researches to be continued that can respond to differentiated and original hair design demand of modern people based on the research on hair design of Jeju Dongjaseok(濟州童子石).

**Keywords : Jeju Dongjaseok, hair design, Joseon Dynasty, twice topknot, bun, daenggi hair**

\* 교신 : 김춘일 6309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라대학로 38.  
제주한라대학교 뷰티아트과(red0072@hanmail.net)

논문투고일 : 2015. 7. 15

수정완료일 : 2015. 8. 10

게재확정일 : 2015. 8. 12

